



전국의 개업변호사가 2만명에 육박하는 등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있다. 크고 작은 법무법인도 유한, 무한 법무법인을 합쳐 900개가 넘는다. 이런 가운데 많은 변호사들이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전문화를 표방하는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리걸타임즈가 그동안 축적된 DB와 해당 분야 변호사들의 의견, 로펌과 변호사들의 고객에 해당하는 사내변호사 평가 등을 종합해 한국의 리딩 변호사를 발굴, 정리했다. 기업법무 11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LEADING LAWYERS 2016



회사법 및 M&A

금융과 함께 기업법무의 양대 축으로 불리는 핵심 분야가 '회사법 및 M&A'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로펌마다 쟁쟁한 실력의 많은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으며, 자문 범위도 M&A는 물론 기업법무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메이저 로펌의 M&A 변호사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 분야의 리딩 로이어(Leading Lawyer)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 로펌의 변호사 중에도 고객의 니즈에 특화된 효율적이고 대응이 빠른 자문으로 호평을 받는 주인공들이 적지 않다.

김앤장은 좌장을 맡고 있는 정경택 변호사가 후배들을 총괄지휘하는 가운데 실무에선 사모펀드(PEF) 등이 관련된 M&A에 자주 나서는 허영만 변호사와 박종구 변호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활약한 임신권 변호사, M&A팀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김진오 변호사, 이경운 변호사 등이 M&A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변호사들로 소개된다. 노영재 변호사도 오랫동안 수많은 M&A 거래에 자문한 이 분야의 시니어 변호사다. 김앤장 M&A팀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고의 M&A 전문기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이해관계와 법률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크로스보더 M&A와 국내 대기업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등의 사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SK C&C와 SK의 합병 건 등이 김앤장 M&A팀이 수행한 주요 거래들이다.

광장의 M&A 팀을 이끌고 있는 이규화 변호사는 25년

넘게 M&A 한우물만 파 온 이 분야의 전문가다. 외환위기 때 제일은행 매각 등 수많은 딜에 참여했으며, 삼성과 한화의 방산·화학 계열 4개사 빅딜, 삼성 SDI의 케미칼 사업부문과 삼성정밀화학을 롯데그룹에 매각하는 삼성-롯데 빅딜도 그의 지휘 아래 광장 M&A 변호사들의 손을 거쳐 마무리됐다. 삼성-한화, 삼성-롯데 빅딜의 상대방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

이규화 변호사에 이어 김상곤, 이형근 변호사가 광장의 M&A 간판 변호사로 소개되며, 문호준, 윤용준 변호사와 일본 기업 M&A 경험이 많은 박금섭 변호사도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인기를 끌고 있다.

태평양에선 서동우, 한이봉 변호사가 오래 전부터 M&A 분야를 이끌고 있다. 최근엔 세종과 지평을 거쳐 2009년 태평양에 합류한 이병기 변호사와 M&A와 함께 해외투자, 에너지 분야 등에서 활약하는 이준기 변호사, PEF 자문과 함께 금융기관 M&A와 구조조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양시경 변호사 등이 태평양을 대표해 협상 테이블에 자주 참석한다. 이준기 변호사는 LG디스플레이의 베트남 법인 설립, 비스테온의 한라비스테온 공조 매각 거래 등에 자문했다.

세종의 임재우, 송창현, 이동건, 장재영 변호사도 M&A 거래에 자주 투입되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UC버클리 법학박사(JSD)인 송 변호사는 발생가능한 모든 이슈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으로 유명하며, 류명현 미국변호사는 크로스보더 M&A, PEF 자문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카카오의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 한앤컴퍼니의 쌍용양회공업 인수 자문이 세종이 최근 수행한 대표적인 M&A 거래로 꼽힌다.

울촌에선 기업법무 및 금융(Corporate & Finance) 그룹을 이끌고 있는 윤희웅 변호사가 금융 쪽을 연결시켜 맹 활약하고 있다. 롯데쇼핑을 대리한 하이마트 인수, 롯데제과의 세계적인 초콜릿 회사 길리언 인수 등이 그가 자문한 대표적인 거래이며, 현대자동차를 대리한 신흥증권 인수, 롯데의 대한화재보험 인수, 현대중공업의 CJ증권 인수 등 굵직한 M&A도 성사시켰다. 윤 변호사와 함께 이진국, 박재현 변호사 등이 울촌 M&A팀에서 활발하게 자문에 나서고 있다. 울촌의 창립멤버 중 한 사람

회사법 및 M&A

Leading Lawyer 김상곤, 노영재, 박종구, 서동우, 이규화, 정경택, 최경준, 최원현, 한이봉

Highly Recommended 김권희, 김진오, 문호준, 박우호, 송창현, 양시경, 이성훈, 이준기, 이진국, 이형근, 임석진, 임재우, 윤희웅, 정철, 최영익, 허영만

*동일 그룹내 가나다순(이하 같음)



인 강희철 변호사도 M&A 등 회사법 분야의 전문가이나 지금은 C&F 그룹에서 독립한 노동팀을 이끌고 있다.

법무법인 KCL의 창립 주역 중 한 사람인 최원현 대표는 30년 넘게 회사법 분야에서 활약하는 1세대 기업자문 변호사 중 한 사람이다. 콜럼비아 로스쿨(JD)을 나와 베이커앤맥켄지(Baker & McKenzie)에서도 활동한 그는 M&A는 물론 합작투자, 라이선싱, 프랜차이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문경험이 풍부하다. KCL 대표를 맡아 로펌 경영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 최 변호사와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하버드 로스쿨(JD) 출신의 신영준 미국변호사와 박우호 변호사가 다양한 거래에 참여하는 KCLM&A팀의 실무 중진으로 소개된다.

법무법인 화우에선 김권희, 한상구, 이송기, 안상현 변호사가 M&A 업무를 소개할 때 자주 이름이 나온다. 서울대 공정거래법 박사인 김권희 변호사의 자문범위는 공정거래와 금융, 국제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지평은 김상준, 정철 변호사 등이 포진한 가운데 특히

중국과 동남아, 러시아 등에 위치하고 있는 지평의 해외 사무소와 연계한 크로스보더 투자, M&A자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정철 변호사가 지평 본사에서 미안마와 중국, 중남미 등을 관장하는 지역 담당 파트너로 활약하며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를 이끌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분쟁에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자문하며 이름을 날린 법무법인 넥서스의 최영익 변호사와 법무법인 양현의 최경준 변호사, 텐센트의 한국 투자 대리인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세한의 임석진 미국변호사, 한결의 안식 변호사도 M&A 시장에서 아무진 경쟁력을 발휘하는 알아주는 전문가들이다. 최영익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독립해 기업법무에 특화된 중소 로펌을 설립해 성공시킨 것으로 유명하며, 미국 5개주의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는 최경준 변호사는 협상 테이블의 외국인 상대방 변호사가 최 변호사가 영어로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적으며 계약서의 초안을 꾸몄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M&A 자문에서 내공을 자랑한다.

또 세종에서 활약하다가 2015년 가을 법무법인 KL파트너스로 독립한 이성훈 변호사가 크고 작은 M&A 거래에서 활발하게 자문하고 있다. 올 2월 초 사조그룹으로 넘기는 인수계약이 체결된 한국제분 매각 거래에서 이 변호사 팀이 한국제분을 대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김앤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후 독립해 중소 로펌을 운영하는 박상열 변호사도 김앤장 시절부터 대형 M&A 거래 등에 관련한 이 분야의 전문가로 여전히 의뢰인들의 선택을 받고 있으며, 법무법인 충정의 박상일, 한얼의 백윤재, 롯데그룹 형제간 분쟁에서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을 대리하는 두우의 조문현 변호사도 수많은 거래에 자문한 기업자문 분야의 베테랑들이다.

증권금융

새로운 금융기법이 앞다퉈 개발되고 있는 증권금융



이해하고, 전략에 능하다는 평이며, 황창식 변호사는 이론적 깊이를 내세워 어려운 사건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안재홍 변호사는 박 변호사와 황 변호사의 장점을 살린 절충형 접근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김진오 변호사도 김앤장에서 그 다음을 잇는 공정거래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된 가운데 공정거래와 M&A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광장에선 안용석, 정환, 서울대 법학박사인 이민호 변호사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 안 변호사는 삼성전자를 대리해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낸 주인공으로, 그의 공정거래 지문 경력은 20년이 넘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송무팀장과 송무담당관을 역임한 이민호 변호사는 이론에 밝다는 평. 같은 공정위 출신인 김성만, 박정원 변호사도 다양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소송은 송평근 변호사가 많이 활약한다.

세종의 임영철 변호사도 판사를 거쳐 공정위 초대 심

판관리관, 정책국장, 하도급국장 등을 역임한 공정거래 전문가다. 공정위 출신의 박주영 미국변호사, 최중혁 미국변호사, 조창영 변호사 등이 임 변호사를 도와 세종의 공정거래 분야를 떠받치고 있으며, 얼마 전 안영진 전 서울고법 부장이 합류해 진용이 강화되었다. 세종 공정거래팀은 지난 4월 GCR(Global Competition Review)로부터 2016년 아시아-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지역 최고의 로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태평양에선 오금석, 윤성운 변호사가 투톱 체제로 공정거래 분야를 지휘한다. 이어 강일 변호사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신상훈 뉴욕주 변호사 등이 활발하다.

화우의 김재영, 윤신승, 구상모 변호사와 KCL의 서혜숙 변호사도 공정거래 분야의 중견 전문가로, 서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서울고법 승소에 이어 5개월 후 상고기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른바 '남양유업 물량밀어내기 사건'에서 124억 6000만원의 과징금 중 119억원을 취소받는 과징금 취소율 95.5%의 놀라운 성과를 얻어냈다. 또 김앤장과 함께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농심을 대리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울춘에선 대법원 재판연구관 행정조장 출신의 박해식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박성범 변호사와 공정위 출신의 이석준 미국변호사, 국제 공정거래법 팀장을 맡고 있는 정세훈 변호사 등이 기량을 뽐내고 있다.

김앤장에서 독립한 이제의 권국현 변호사, 지평의 김지홍, 김상준, 강호의 조정욱 변호사 등도 공정거래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문가로, 지평과 강호의 변호사들은 과징금 취소소송 등에서 공정위를 대리하는 경우도 많다. 바른의 장용석 변호사도 공정위 근무 경력을 살려 관련 사건에서 활발하게 지문한다.

국제중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분쟁 (ISD)의 4차 심리가 열린 6월 2~3일 헤이그의 평화궁. 아

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와 함께 우리 정부를 대리하는 태평양의 김갑유, 임수현, 김준우 변호사와 방준필 미국변호사, 론스타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KI파트너스의 김범수, 이은녕 변호사가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의 변호사들과 함께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2012년 11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된 이 사건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ISD로 청구금액이 5조원이 넘는 큰 사건이다. 이날 심리를 마지막으로 앞으로 중재재판부의 추가 질의와 서면답변 등이 추가될 수 있으나 약 1년 후면 중재인 합의를 거쳐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ISD 증가와 함께 해외건설, 에너지 분야의 분쟁이 늘어나며 국제중재 변호사들이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중재법이 개정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개정된 국제중재규칙도 6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 메이저 로펌 위주로 국제중재팀이 구성된 가운데 국제중재 분야에 특화하려는 변호사들이 늘어나는 등 저변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인 최초로 ICSID 의장중재인으로 두 차례 선임된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국제중재 전문가이며, 일선 기업을 대리하는 로펌의 실무계에선 김앤장의 윤병철, 박은영, 정교화 변호사, 태평양의 김갑유 변호사와 방준필 미국변호사, KI파트너스의 김범수 변호사, 광장의 임성우, 율촌의 이영석, 김세연 변호사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해외 건설분쟁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임병우 변호사와 영국변호사 자격도 갖추고 런던해사중재인협회(LMAA) 중재에서도 활약하는 이철원 변호사, 베그너



카이야네스 독일 및 영국변호사, 메나드 리처드 미국변호사 등이 김앤장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태평양의 매튜 크리스텐슨 뉴욕주 변호사, 광장의 로버트 왓터 미국변호사도 유명하다.

김범수 변호사와 함께 세종 국제중재팀의 트리오로 활동하다가 KI파트너스로 독립한 이은녕 변호사와 김준민 뉴욕주 변호사도 국제중재 세미나 등에 단골로 초청받는 이 분야의 중견 전문가들. 세종에선 이승민 변호사와 캐나다 변호사인 데이비드 김이 김범수 변호사 등이 빠진 공백을 메우며 활약하고 있다.

화우에선 부장관사 출신으로 법무부 산하 중재법 개정 TF 위원으로 활동한 이준상 변호사가 국제중재 사건을 많이 다루며 활약하고 있다. 하버드 로스쿨(LLM)로 연수를 다녀온 율촌의 안정혜 변호사도 국제중재 분야에서 이름이 자주 나온다.

김세연, 정교화, 임수현, 이승민, 안정혜 변호사가 모두 여성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 전문가

국제중재

Leading Lawyer 김갑유, 김범수, 박은영, 윤병철, 임성우, 정교화

Highly Recommended 김세연, 김준민, 김준우, 방준필, 데이비드 김, 이승민, 이영석, 이은녕, 이준상, 임병우, 임수현

의 비율이 높은 것도 국제중재 변호사들의 특징 중 하나. 여성 중재 변호사들이 ISD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 활약하며 국제중재의 다음 세대는 여 변호사들이 중심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임수현 변호사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ISD 사건에서 김갑유 변호사와 호흡을 맞추고 있으며, 판사 경력의 김세연, 정교화 변호사는 각각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그룹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와 아랍에미리트(UAE)의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소송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있다.

이승민 변호사는 2010년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사무국 변호사로 근무한 데 이어 2011년에는 Weil Gotshal & Manges의 영국사무소에 파견되어 Weil 국제중재팀의 일원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지식재산권

국내 IP 변호사의 계보는 1968년 중앙국제법률사무소를 설립해 특허 관련 법률서비스를 시작한 이병호 변호사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 중앙국제에 잠시 몸담기도 했던 김앤장의 장수길 변호사와 한승헌 전 감사원장도 이 분야에 조예가 깊고, 판사 시절부터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김인섭 변호사도 태평양 설립 초기 지적재산권 사건을 많이 취급했다.

이후 김앤장의 양영준 변호사와 법무법인 KCL의 김영철 변호사 등이 이 분야에 특화한 초기 주자로 분류되며, 광장의 김재훈, 상표에 밝은 조태연 변호사, 김앤장



의 장덕순, IP 부티크로 성공한 다래의 박승문, 조용식 변호사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변리사와 함께 막강한 IP군단을 보유하고 있는 김앤장에 쟁쟁한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양영준 변호사에 이어 장덕순, 한상욱 변호사가 유명하며,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원유석 변호사는 삼성전자 대 애플 소송 등 지재 소송에서 활약하고 있다. 또 박성수, 정여순 변호사와 일본통으로 유명한 김용갑 변호사 등이 그 다음에 소개되는 전문가들이다. 외국 변호사 중엔 양준영, 김재정 미국변호사가 먼저 이름을 나운다.

광장에선 김재훈 변호사에 이어 서울대 화공과 출신의 권영모 변호사가 후배들을 지휘하고 있다. 198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 변호사는 법률과 기술을 성공적으로 접목시켜 고객에게 자문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또 특허법원 판사 등으로 근무한 오충진 변호사와 대법원 지적재산권 전담조 연구관과 서울고법 지적재

지식재산권

Leading Lawyer 권영모, 김영철, 김재훈, 박승문, 양영준, 장덕순

Highly Recommended 김범희, 김원일, 김철환, 문용호, 박교선, 이명규, 이후동, 조용식, 조태연, 최승수, 최정열, 한상욱